

‘하니움 센터’ 화순 경제 살린다

올 개최 대회 20개…50만명 유치·경제효과 250억 전망

화순군 ‘랜드마크’인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다음달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를 비롯해 올해 하니움 개최가 확정된 각종 국내·국제대회가 20개로 방문 예상인원만도 50만 명에 달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달 평균 2~3개 대회가 이어지며 경기종목도 배구, 검도, 탁구, 태권도, 배드민턴, 유토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소 등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7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 49

회 전남도민체전’은 지금까지의 여느 대회와는 전혀 다른 성대한 문화체전으로 치른다는 전략이어서 화순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 하순에는 ‘이용아 올림픽 제2회 기념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11월 말엔 ‘화순 코리아 칠린지 국제대회’가 열려 화순이 세계 배드민턴의 메카임을 확인하게 된다.

하니움은 세계 최초로 체육관과 문화예술관을 수직 복합으로 시공해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각종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해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육관 명칭인 ‘하니움(Hanum)’은 화합(Harmony)과 중심(Centrum)의 합성어로 화순의 조화와 화합의 중심이 되는 문화스포츠센터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군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팀이 하니움에서 두달간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전지훈련장으로 부상했다.

화순군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대회 유치를 기획하고 있어 연중 각종 스포츠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게 된다”며 “올해 수십만명이 화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니움이 화순경제를 살릴 힘을 노릇을 확실히 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17일 하니움에서 도민체전 D-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49회 도민체전’ 발대식을 갖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입춘 앞둔 들녘…밭갈이 한창

입춘(立春)을 1주일여 앞둔 26일 강진군 작천면 들녘에서 한 주민이 경운기로 밭을 갈며 영농준비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 염색공방 폐수처리 시설 시급

정화시설 없어 방류시 영산강 지류 오염

국비를 지원받아 나주에 신축된 쪽 염료를 생산하는 공방에 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광, 다시면에 들어선 2개소의 쪽염색 공방은 4년 전 국·도비와 시비 등 2억 원씩의 보조금을 받아 신축돼 염색장인으로 지정된 A씨 등이 전연 염색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방에 폐수처리시설이 전혀 없어 쪽염색 시설 가동시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영산강 지류 등으로 유입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공방은 쪽 염색 시설 가동시 2~3일에 5t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염색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여름철 이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쪽 염색을 위해서는 pH(수소이온 자수)12 정도의 강암칼리성 물이 사용되고 있어 고도의 정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염색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를 공방은 전통방식(향아리방식)보다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이면

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삼서면 일부 마을의 지하수에서 질소 등이 검출돼 상수도 공급이 시급함에 따라 환경부에 건의해 올해부터 사업을 착공하게 됐다.

군은 지난 25일 삼서면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마을에 우선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마을은 100%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총 5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42km를 매설하게 된다. 군은 오는 3월 중 설계 심의 및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4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등 북부권을 시작으로 2015년 장성군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매년 국비와 군비를 확보,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법·질서 통하는 서민 치안 확립”

양희기 장성 경찰서장



“법과 질서가 통하는 합리적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민치안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양희기(56) 장성 경찰서장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직장문화와 함께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

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인 양 서장은 원광대 법대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투신해 완주 경찰서장, 부안 경찰서장, 전북 경비고통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미자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다량의 오염수 방출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지난 2005년 준공된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은 하루 30t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신대 환경학과 C교수는 “pH8.9 이상이면 강암칼리로 구분되고 있어 조금만 흘러보내도 문제가 된다. 그 정도면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방 관계자는 “나주시의 감독을 받아 공방과 교육관을 건립했으며 염료 생산에 사용되는 석회는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소량을 넣어 오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쪽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 쪽 염색 = 쪽은 한해살이 풀로 낮색을 얻을 수 있는 천연염료. 염색작업은 주로 승강장과 지하통로 등에 축령산 편백나무숲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해에는 테마관 주변에 어린이 복합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승강장과 지하통로 등에 축령산 편백나무숲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홍태 장성역장은 “올해 축령산 편백나무숲 피톤치드 향을 상품화한 ‘산소 관광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어 장성군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제주’ 안부러운 ‘나주’ 한라봉

당도 높고 향 좋아 인기…경락가도 더 높아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이 나주의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재배하는 43농가는 협의회를 구성, 연간 2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주에서 생산된 한라봉은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반면 신맛이 적어 제주산보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주도의 한라봉과 비교해서 나주산 한라봉이 3kg 1박스당 3천원 이상씩 경락가격이 높게 나오는 상태다.

나주지역 토양 자체가 사질양토이며 일조량이 풍부해 제주도의 기후특성보다 한라봉 세례지로 더욱 적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나주산 한라봉은 전체 재배농민들이 친환경 토비로 재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등 기능성 과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한라봉이 나주에서 이 같이 대량 생산되기까지는 이영길(67·나



주시 석현동)씨가 산증인이다.

이씨가 일본에서 한라봉의 묘목을 처음으로 들어와 첫 시비자로 나주에서 성공을 거둔 뒤 일부를 제주도에 보급해 제주 특산물이 된 것이다. 나주 한라봉 농가들은 고품질의 한라봉 생산과 함께 소비자들과의 교감을 위해 체험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임호근(40·나주시 노안면) 상제농원 대표는 “농원을 직접 방문해 한라봉을 따서 맛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가격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험원의(061-332-1653)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틱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제작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 쿠진 요리학원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 ●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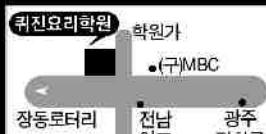
○ 개 강 2월 1일 ○

훈련 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제작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제작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 담 전 화 ○

226-5500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재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직장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김정원기사, 공인중개사, 기관법인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고급 특례, 자산운용관련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 자격제 공무기관·자영공사·재정공단, 금융기관·개발 업무 3년 이상, 대학교원·대학원·대학원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전시식자 제공, 강의료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김동숙 번호사 062)233-3119 f.062)233-3117

다산공인중개사</h2